

광주시, 짬뽕더위 날릴 물놀이장·분수 가동

광주시민의숲·중외공원·상무시민공원 등 물놀이장 8곳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 안전요원 상시 배치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15곳 가동... 여름쉼터 인기 기대



를 맞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닥분수'는 중외공원·운남공원·일곡제1근린공원 등 7곳에서, 흥겨운 음악과 함께 물줄기가 솟아나는 '음악분수'는 양산호수공원과 수완호수공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물빛공원, 쌍암공원, 두산공원 등 3곳에서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 보기만 해도 더위를 날릴 수 있는 '폭기분수'가, 고래실공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길'이 조성돼 있다. 평화공원에는 '물길'과 함께 시원하게 쏟아지는 '벽천분수'를 만날 수 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폭폭 찌는 짬뽕더위를 날려줄 광주 도심 속 도시공원 물놀이장이 이번 주부터 일제 가동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심 속 물놀이장 8곳과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15곳을 본격 운영한다. 먼저 광주시민의숲과 중외공원(생태예술놀이정원) 물놀이장을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또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7월 22일 개장해 8월 1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쌍암근린공원 물놀이장은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산동고 주변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매주 월요일 휴장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또 광주환경공단에서도 광주전 지역 물놀이터를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모든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장에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된다. 또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15일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분수 등 수경시설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서구, '꿈이 빛나는 공부방'으로 착한동행 민관 연대로 후원금 마련... 아동 학습환경 개선 나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광주 최초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이 빛나는 공부방'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는 올해 13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정리수납, 책상·침대 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함께한 연대의 결실로 서구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1755만원을 후원하고 서구 공직자들이 'MBTI 기부 챌린지 바자회'를 통해 1245만원을 마련해 총 3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첫 번째 지원은 17일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아너스 회원, 무진복지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벽지와 바닥재를 교체하고 정리 수납 작업에 참여하며 온정을 나눴다. 해당 가정은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로 비정기적인 일용직 소득에 의존해 주거와 교육 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지원 가정은 곰팡이와 습기로 위생 상태가 심각한 주거지에서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사례로 학습과 놀이 공간의 분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구는 나머지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아너스 후원자들이 이끌어온 따뜻한 나눔에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의 틈을 하나씩 메우며 착한도시 서구의 선한 영향력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청렴방송 진행자 김병내, 새내기 공무원 주아미입니다. 매일 감동 존중의 날,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소중한 가치 공유해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일 한차례씩 청내 방송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렴방송을 송출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굿모닝 청렴방송이 7월 넷째 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일 남구 종합청사 내에 울려 퍼진다. 구청 직원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으로, 공직사회 구성원간 청렴 의식을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

남구 "안녕하세요, 굿모닝 청렴방송입니다"

22일 첫 송출, 1호 진행자 구청장·새직 공무원
구청 직원들 매일 자체 제작, 메시지 전파·공유

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남구는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지난 6월 20일 구청 7층 N스튜디오에서 사전녹음 등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며 첫 방송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 첫 방송은 감정 존중의 날인 오는 22일 청내 오디오 방을 통해 업무 시작 시점인 오전 9시부터 9시 3분까지 3분간 송출된다.

1호 진행자는 김병내 구청장과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주아미 새직 공무원이다. 두 사람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청렴 자세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한다. 특히 김병내 구청장은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양나무 아래에서 도 갖을 고쳐 쓰지 않는다"라는 과전불남

리(瓜田不納履)를 인용,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내 방송을 통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생활 속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매일 11일과 22일을 감정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드라마 제작 및 청렴이 꽃피는 나무 운영, 클린 남구 추진단 보고회 개최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채일 기자

여름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전남관광플랫폼(IN TOUR) 남도속박 할인 이벤트'를 펼치는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 관광상품 할인을 진행해 전남에서 '반의반 값 여행'을 즐길 기회가 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벤트를 통해 전남 외에 주 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1박당 10만 원 이상 결제는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할인한다. 연속 3박의 경우 최대 12만 원의 숙박비 할인을 제공한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 회원은 1박당 추가로 1만 원 할인이 적용된다. 입장료나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 블루투어 할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와

전남서 '반의반 값' 알뜰한 여름 휴가 보내세요

전남관광플랫폼 앱 통해 숙박·관광·체험 프로그램 등 할인
강진·장성·완도·영암 등서 최대 20만 원 상품권 지급 추가

인동굴, 담양 죽녹원, 구례 섬진강 스카이라인, 강진 쥘트랙, 함평 엑스포공원 VR 체험장 등 19개 업체에서 71개 체험상품 티켓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로 제공한다. 남도속박과 1+1블루투어 할인 이벤트 참여는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가능하다. '위케이션 반값 할인'도 추진한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상품(숙박+체험프로그램+사무공

간 제공)에 대해 1박에 10만 원, 2박에 20만 원, 최대 3박에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약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예약 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전남도의 관광상품 할인에 더해 시군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남도의 맛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염선호 기자

반값 여행의 원조 격인 강진군은 '반값 여행' 사업으로 숙박비 포함, 강진에서 지출한 금액의 50%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 원, 2인 최대 20만 원을 강진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암군은 '영암여행 1+' 사업을 통해 7월 말부터 영암군 외 거주자이고 2인 이상 한 팀이 영암에서 10만 원 이상 소비했을 경우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회 5만 원, 2회 7만 원, 3회 방문은 10만 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3회 방문자엔 그 외 영암 특산물 판매사이트인 '영암몰'에서 사용가능한 2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염선호 기자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하수도 시설물 준설작업 박차

동구, 맨홀·빗물받이 등 집중 관리·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물 일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6월 말 재난특별교부세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아 7~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관내 맨홀과 빗물받이 등 하수도 준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3~6월 간선도로 유입구 및 일부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공사를 한 바 있다. 집중 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의 물 흐름(통수능) 부족으로, 원활한 빗물 배수를 위해 빗물받이를 막힘없이 관리하기 위해 이번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기능이 떨어진 노후 빗물받이에 대해

서 교체 공사, 배수 불량 지역, 물이 심하게 고이는 구간 등은 유입구 신설 공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준설작업은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동구는 준설작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추가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보다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배수로 주변에 쓰레기, 담배꽂초 등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